

# 발레 · 미디어아트 결합... '빛의 정원 II' 광주 야외무대

발레와 미디어아트가 결합된 창작 발레 '빛의 정원 II'가 광주 야외무대에서 관객을 만난다. 광주시립발레단은 25일부터 28일까지 오후 8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서 '야외에서 즐기는 발레의 향연-빛의 정원II'를 무대에 올린다고 22일 밝혔다. '빛의 정원 II'는 박경숙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이 총연출을 맡았으며 미디어 아티스트 진시영 작家的 미디어파사드가 더해져 작품으로 탄생했다. 첫 무대는 '봄의 소리(Voice of Spring-Sallon de ballet)'로 광주시립발레단의 올해 첫 창작 작품이다. 작품은 오스트리아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신년음악회에 빠지지 않

광주시립발레단 · 진시영 미디어아트 무대  
25~2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



는 무도회 풍경을 모티브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에 맞춰 춤을 춘다.

이어 4인무(Pas de Quatre)가 관객을 춤의 매력으로 빠지게 한다. 4인무는 영국 왕실극장의 발레 마스터

였던 쥘페로가 빅토리아 여왕 내외를 위한 의전용 발레 작품으로 창작했다. 또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 중 하나인 '잠자는 숲 속의 미녀' 중 파랑새(Blue Bird)와 서아시아 쿠르트족의 전쟁 출전을 위한 전통 음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요에 중 '갑춤'이 공연된다. 이 밖에도 희극 발레의 대명사 '돈 키호테'와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 제 5막에 삽입된 발레 '파우스트'가 선보인다. 광주시립발레단 관계자는 "야외에서 펼쳐지는 이번 무대는 광주시립발레단의 고유 레퍼토리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권형안 기자

# 담양 해동문화예술촌, 찾아가는 공연예술

'메타-버스' 10월까지 운영... 오늘 첫 공연

담양군문화재단 해동문화예술촌이 먼 소재지로 직접 찾아가는 공연예술 '메타-버스'를 선보인다. '메타-버스'는 문화 소외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공연예술로 담양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개최하는 2022년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메타-버스'는 오는 10월까지 담양군 면 소재지 네 곳(무정면, 대덕면, 창평면, 봉산면)을 직접 찾아가 지역의 특색을 접목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25일 개최될 첫 번째 공연인 '구

각노리와 함께하는 새로운 국악과 한시'는 퓨전 국악 공연으로 오후 5시 무정면 체육공원에서 진행되며, 한국의 원조적 감성을 노래하는 '구각노리'와 함께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지역예술인들과 함께 주민 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되며, 주민 밀착형 공연을 통해 문화예술 여건을 마련하고 문화예술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해동문화예술촌 소셜미디어와 담양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양=조승재 기자

광양시립도서관, 26~31일 어린이 도서 작가 초청 강연

광양시립도서관이 26~31일 지역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22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어린이 도서 '내 이름을 들려줄게'의 저자 조연화 작가를 초청해 학교로 찾아가는 강연을 연다. 올해의 책 작가 초청 강연은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올해의 책을 함께 읽으며 토론하고 소통함으로써 '시인 한 책 읽기' 범시민 독서운동'으로 연계시켜 지역사회에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추진해 왔다. 광양시립도서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바다와 아름다운 풍광, 도시와 어촌 농촌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곳에 산다"고 자신을 소개한 조연화 작가는 광양에 거주하고 있다. 찾아가는 작가 초청 강연은 지역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리 신청받아 4개 학교를 선정했으며 작가가 직접 학교를 찾아 어린이 독자들을 만난다. 조 작가는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무지개'라는 주제로 다양성이 가지는 아름다움과 꿈이 가진 힘에 대해 어린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광양=조순희 기자

# '그대가 조국 · 오마주'... 광주극장 잇따라 개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다룬 다큐멘터리 '그대가 조국' 등 다양한 주제의 영화들이 광주극장에서 상영된다. 광주극장은 '그대가 조국'(25일), '플레이그라운드' · '오마주'(이상 26일), '애프터 양'(윤 2일) 등을 잇따라 개봉한다고 23일 밝혔다. 다큐 '그대가 조국'은 조국 전 장관이 장관으로 지명된 2019년 8월 9일부터 장관직을 사퇴한 10월 14일까지 67일 동안의 과정을 다루고 있다. 작품은 이승준 감독이 연출했으며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됐다. 영화 '플레이그라운드'는 일곱 살 '노라'와 오빠 '아벨'이 맞닥뜨리게 된 학교라는 세상을 아이의 눈높이에서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로라 원텔 감독은 전 세계인의 공



통 이슈인 '학교 폭력' 문제를 '학교 운동장'이라는 일상의 공간을 통해 그려냈다. '오마주'는 한국 1세대 여성영화 감독의 필름을 복원하게 된 중년 여성 감독의 현재와 과거를 넘나드는 시간여행을 담고 있다. 배우 이정은이 첫 단독 주연을 맡아 꿈과 현실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 따뜻한 공감을 전한다.

/김도기 기자

# 극단미암 창작극 '땅끝해무' 관객 만난다

26~27일 오후 7시 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극단 '미암'이 26~27일 오후 7시 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에서 창작극 '땅끝해무'로 관객들을 만난다. 2022년 전남공연장상주단체지원사업, 첫 번째 작품인 '땅끝해무'는 인생의 짙은 해무에 갇혀 갈 길을 못 찾고 해매는 주인공 정섭을 통하여 관객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한다. 지난해 초연 창작되었으나 인터넷 생중계로 관객을 만났고, 대면으로

첫 선을 보이는 작품이다. 극단미암이 새로운 로컬 스토리의 연극을 무대에 올려 코로나로 공연장을 찾지 못했던 관객들의 문화향수를 채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극단미암 고유경 대표는 "오랜만에 관객을 만나게 되어 설렌다. '땅끝해무'를 통하여 관객들이 자신의 인생이정표를 다시 점검하고 힘을 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 조각가 이유미 '길을 찾아서...'

여수 에그갤러리서 작품 15점 전시

가족사와 시대의 아픔을 독특한 인물상으로 표현해 주목을 받고 있는 조각가 이유미(53)가 여수 도성마을 에그갤러리에서 다음달 30일까지 전시한다고 밝혔다. 도성지역발전협의회가 후원하는 이번 전시는 최근 여수에서 천재 조각가 류인 전사가 잇따라 열리면서 조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를 반영해 기획한 것이다. '길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지난 2013년부터 실험적인 아버지의 삶에 얽힌 사연과 제주 4.3과 관련한 시대의 아픔에 천착해 발표해 온 15점을 선보인다. 이 작가는 "유년 시절 한센인이 계란을 생산했다는 이유 하나로 계란



을 먹지 못했을 정도로 편견을 갖고 있었다"며 "이번 전시는 내가 갖고 있던 또 다른 편견을 깨고 정신적으로 한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여수=조일상 기자

# 영암 마산리 토기요지 긴급 발굴... 정부 공모사업 선정

마한~통일신라시대 토기 요지 성격 규명 기대

영암군은 문화재청의 '2022년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공모사업'에 영암 마산리 토기요지가 선정돼 국비 1억 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은 매장문화재 유적 보호를 위해 긴급발굴 조사비를 전액 국비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영암 마산리

토기요지를 포함해 전국 4개의 사업 대상지가 선정됐다. 영암 마산리 토기요지는 2021년 문화재청 긴급 발굴조사(시굴)를 통해 토기 가마 3기와 유물 폐기장이 조사됐다. 주요 유물로는 8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완과 호, 병, 대부알, 대호 등의 기종과 인화문토기가 확인됐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문위원회에서는 영암 구림리 요지(사적 제338호)의 계보를 이어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판단하고, 유적의 성격 규명과 범위 파악을 위한 정밀 발굴조사가 필요하며 향후 지방문화재로 지정해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긴급발굴조사는 영암지역 마한~통일신라시대 토기 요지에 대한 성격 규명과 향후 체계적인 분포 조사를 추진하는 기초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암=김형두 기자



## 아모레 카운셀러

※ 문의만 하여도 선물을 드립니다

# 전국 3만6천명 여성 최고의 직업

대한민국 여성 화장품 판매 1위

대한민국 기초 화장품 1위 셀화수

대한민국 색조 화장품 1위 헤라

제약에서 만든 건강식품

1. 여성으로 가장 잘 할수 있고 가장 쉬운 사업입니다. 판매와 재판매가 손쉽고 고객과 본인이 함께 이해지는 일석이조!!
2.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브랜드 입니다. 설명이 필요없이 판매가 쉬운 대한민국 명품 화장품 입니다.
3. 기본수당 + 영업판매수당 + 각종 판촉지원 + 교육지원 + 해외여행 기회..... 등

아모레 신안특약점 수퍼마스터 송광자

## 010-3634-5083

## 062-522-2352 / 2353